

TNGT-002



RESOLUTION



이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東方花映塚 - 花映塚 ~ Higan Retour

東方風神録 - 封印されし神々

저번 앨범에 이어 이번 앨범에서도 첫곡은 인트로의 어레인지입니다.

저번곡에선 흥 요 영 세곡의 인트로를 묶었으니 그 뒤의 곡을 묶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흔히들 구분하길 풍 지 성 세계를 묶지만 지령전과 성령선의 분위기가 풍신록과는 차이가 좀 크기도 하고 갈 곳을 잃은 화영총이 애매하기도 해서 풍신록과 화영총의 인트로를 이어보았습니다.

10

Dreaming future

東方地靈殿 - エネルギー黎明 ~ Future Dream

대망의 마지막곡.

첫 앨범의 엔딩곡이 아. 끝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엔딩곡은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느낌입니다. 마침 곡명도 미래를 꿈꾸다 네요. 거기에 ‘이 구역의 박자 변태는 나야!’ 라는걸 주장하고자, 더해서 인트로랑 아웃트로에 ‘오아아아 뭐가 이거 어케되는거야’ 하는 느낌으로 갈때까지 가보자 해서 박자를 또 한번 이상하게 꼬아보았습니다.



02

Night Begin

東方永夜抄 - 幻視の夜 ~ Ghostly Eyes

이전 앨범과 딱히 이어지는 무언가는 아니지만 이전 앨범이 밤 시간대에서 끝났으니 다시금 밤이 시작된다 같은 느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쫓 생활한지라 반딧불이는 한번도 본적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은 꼭 보고 싶습니다.

03

취재대기중

ダブルスボイラー - 無間の鐘 ~ Infinite Nightmare

아아아아아아아아

취재거리를 기다릴때 아야는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원곡 자체는 참 아이러니한 곡입니다. 슬슬 제로의 벽이 느껴질 시기에 이런 잔잔한 곡이라니, 재시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 곡으로라도 풀라는 zun의 배려일까요.

어떻게 하다보니 두번째 앨범까지 왔습니다. 맨 처음 작곡을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과연 앨범을 만들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두번째라니.



04

신사에서 바라본 산의 풍경

東方風神録 - 少女が見た日本の原風景

모리야 신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하쿠레이 신사에서 내려다보는 그것보다 뭔가 복잡복잡하고 때로는 종종 요란하고 가끔은 거대한 폭발이 한두번쯤 일어난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름 한가닥 한다 하는 요괴들이 모여 사는 요괴의 산이니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이상할 일일지도요.

05

Song over ruin

東方地霊殿 - 魔獄ララバイ

원곡인 폐옥 헐러바이를 듣고 있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린은 이 곡을 시체수레를 밀고 지옥 한가운데를 달리면서 흥얼거리고 있지 않을까?

장르는 브레이크코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드럼 비트는 약간 서브로 밀어내서 오린 주변의 원령들이 내는 소음 정도로, 원곡의 멜로디를 스트링을 왕창 써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의 목소리는 보컬로이드 유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 하네요. 이왕 이렇게 두번째가 만들어진거 앞으로 세번째, 네번째 그 뒤를 이어 꼭 어레인지 앨범을 만들고 싶습니다.



06

불가능한건 아무것도 없어

弾幕アミノジャク - 不可能弾幕には反則を

어떤 수를 써서든지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거야!

이곡은 제가 탄막 아마노자쿠를 처음 플레이 할때의 감상이 진하게 담겨있는 곡입니다. 처음 볼때 와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 싶은 탄막이 나오는데 이걸 또 꼼꼼히 생각해보니 어떻게 클리어 할 방법이 있더라구요.

아무튼, 탄막 아마노자쿠는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피지컬이 꼼직한 저도 재밌게 했으니 슈팅이 어려워서 쉽사리 손대기 힘든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07

magus night

妖精大戦争 ~ 東方三月精 - メイガスナイト

체르노에게 무자비하게 손전등을 휘두르는 마리사입니다. 원곡의 웅장한 느낌을 좀 살려보고싶어서 현악기와 피아노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왜 브레이크 코어나구요? 그건 드림이 없으면 곡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제 취향 탓입니다.



08

I can't hear you. I wanna hear you.

東方地霊殿 - ハートフェルトファンシー

東方地霊殿 - ハルトマンの妖怪少女

전체 앨범제작기간 약 5개월 중 그중 절반을 혼자서 잡아먹은 곡입니다.

사토리가 바라보는 코이시를 주제로 조금 슬픈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애뜻하면서도 안타까운 감정이 전달되도록 클라이막스를 구성하여.... 같은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토리랑 코이시가 귀엽습니다.

사토리랑 코이시가 귀엽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충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이곡은 나중에 가사를 넣어서 보컬곡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같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9

Secret door is open

東方天空璋 - 秘匿されたフォーシーズンズ

東方天空璋 - 秘神マターラ ~ Hidden Star in All Seasons.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만든 곡입니다.

첫 앨범에선 보너스 트랙 비스무레 한 느낌으로 그래도 한국정돈 메탈을 넣고 싶은데 하는 미련을 잔뜩 담다못해 곡명까지 미련으로 지어서 집어넣었다면, 이번엔 그냥 대놓고 나 메탈만들꺼야 우와야아양 하는 느낌이었네요.

당시엔 귀형수가 나오기도 전이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신작의 곡도 어레인지 하고 싶단 생각에 곡을 듣다가 오키나의 두곡이 생각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Special thanks to.

작곡을 하고 앨범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분들.

동방프로젝트 제작자 ZUN 씨와 동방 여러 인지를 만든 많은 서클 및 아티스트 분들.

제 음악 취향이 여기에 오기까지 들었던 수 없이 많은 곡들을 만든 여러 작곡가 분들.

사운드 클라우드의 제 음악을 재생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

And You.